

금추일야 이런 행은 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다만 탐욕과 교만을 더하게 하나니 이익을 구하는 원이 다르고 도를 구하는 원도 또한 다르다. <법구경·우암품 20절>

제 1186 호

<주간>

199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5년(불기 2539년) 10월 30일 (월요일)

구분: 대학신문
설립: 1962년
주최: 동국대학교
발행: 동국대학교
편집: 동국대학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260-3492
FAX: 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총학선거 세팀 입후보 3일 1차유세 14일 투표

제28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장선거에 박동민(물리4)·박창민(기계4)·유병문(물리4)·황인구(아간영문3) 및 유영하(산공4)·김보현(식자3)등 6명(이상 가나다순) 세팀이 입후보해 오는 11월3일 1차유세를 갖는다.

지난 25일 등록이 마감된 각 후보들의 구호와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박동민(물리4)·박창민(기계4) 조는 '1996. 학우들의 반격, 동과 쿠데타'라는 구호아래 △학생회 전반기 혁신 △학부제시대의 대안창출 △민주노총 건설 제1세대 선언을 공약사항으로 출마했다. 유병문(물리4)·황인구(아간영문3) 조는 '실천하는 청년의 4역사창조, 인간의 존엄을 향한 뜻대있는 공동체'라는 구호아래 △학우들의 애국적 삶에 기반한 학생회건설 △학부구조 개편 주도 △4월총선 승리와 현정권 심판으로 민주연립정부 토대구축 △메달 마

지각 금요일 '동국의 날' 개최 △학생협건설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영하(산공4)·김보현(식자3) 조는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소외된 '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아래 △학생중심 △자아인식 △자아발전 △자아실현을 공약사항으로 들고 총학선거에 입후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대용·불교4총대의원장)가 발표한 선거일정을 보면 △1차유세=11월3일(중앙도서관) △공청회=11월7일(동국관) △3차유세=11월9일(만해광장) △4차유세=11월13일(중앙도서관) △공청회=11월10일(중앙도서관)이며, 14일~16일 투표, 17일 부후보자는 서정은(역교3)·조은숙(국민윤리2) 조가 단독출마했다.

경주캠퍼스 제3대 총학생회선거는 오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11월23일 투표에 들어간다.

한편 제11대 총학생회 선거 중 부후보자는 서정은(역교3)·조은숙(국민윤리2) 조가 단독출마했다.

서정은·조은숙 조는 '총학생회에 대한 인식의 재변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강의실 밖의 강의제도 △P.C통신 의견수렴관 계제 △동아 여성 모니터요원 모집 △학회에 대한 지지와 지원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내년도 1학기 교수초빙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는 오는 11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96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원서를 접수한다.

이번 교수초빙에서는 서울캠퍼스 불교 학부의 20개학부(과) 34명, 경주캠퍼스 인문학부의 8개학부(과) 37명으로 총 71명을 초빙할 계획이다.

이런 교수초빙에서는 서울캠퍼스 불교 학부의 20개학부(과) 34명, 경주캠퍼스 인문학부의 8개학부(과) 37명으로 총 71명을 초빙할 계획이다.

신교육제도운영실무팀 발족 개정교육제도 세부사항 연구

신교육제도운영실무팀(이하 실무팀)이 장오현(경제학)교무처장의 9명으로 구성, 발족되었다.

지난 24일 정식발족된 실무팀은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따라 새로운 체제에 따른 교육제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무팀의 한 관계자는 "타대에서 아직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먼저 체계를 세워 새로운 교육제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그 교육성과는 매우 크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무팀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오현(경제학)교무처장=신교육제도운영실무팀 총괄지휘 △정태섭(역사교육)연구부장=신교육제도운영실무팀장 △이광구 기획계장, 박동수 수업계장, 박상관 학술계장, 장은 학생계장, 김계현 학생복지계장, 김성근(사범대 교학과), 김영준(교무처 학과), 박정순(연구교수

연구부) 이상 8명 신교육제도실무팀.

한·일 학술교류회의 '생명과 환경'주제

한·일학술교류회의가 제4회인 일본 대정대와 '생명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지난 27일 동국관(L301)에서 개최했다.

학술교류를 통해 양국간의 학문적 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열린 이 학술회의는 매년 분교와 대정대를 번갈아 가며 열린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이번 회의는 정태섭(역사교육)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각 주제별 발표가 있었다.

발표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불교에 있어서 환경과 생명론 리=이법산(철학) △경제성장과 환경의 위기=황태연(정치외교학) △환경친화적인 과학과 기술의 발전=정재훈(연세대 환경과학) △일본의 불교학회의 대응과 공생사상은 이시 가미노노(대정대 불교문화학) △고대 인도(베다 및 초기불교)에 있어서의 자연관=마쓰미 요시히로(대정대국학문화학) △생명윤리와 불교=다나카 마사히로(대정대 불교학).

고산·법장 새 이사로 선출 녹원등 3인 유임... 11월 이사장 선출

재단은 제134회 이사회를 열어 고산(상계사 주지), 법장(수덕사 주지)을 새 이사로 선출하고 임기 만료된 녹원, 벽파, 현성스님 및 재가이사 4인을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3일 타워호텔에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재단이사회에서는 11월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 8인과 공석인 서형통(전총무위원장)이사의 후임까지 총 9인의 이사를 이사의 심의를 통해 선임했는데 유임된 재가이사로는 송석구(분교 총장), 서문각(진흥원 이사장), 유주영

(총동맹회 부회장), 안재관(영서고 이사장)씨 등이다.

한편, 이사장 선출은 유임된 이사를 포함한 총 13인의 이사들에 의해 11월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응곡대 유학생 선발

학술교류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학)는 96년 일본 응곡대 유학생 선발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선발된 학생은 모두 2명으로 최은영(대학원 일어일본3학기)양과 송성훈(일어일본3)군이다.

보리수 극락과 지옥

극락(極樂)은 불교의 이상을 가장 구상적으로 묘사한 세계다. '즐거움이 있는 곳'이란 뜻의 산스크리트어 수카바티(Sukhavati)를 번역한 이 말은 다르게는 '안락(安樂)' 또는 '안양(安養)'이라고도 옮긴다. 경기도에 있는 위성도 시 안양은 여기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대승경전의 하나인 '아미타경'은 극락세계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미타불이 교주인 극락세계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娑婆世界)와 달리 살아야 하는 세상이라는 뜻에서 서쪽으로 10만억이 나 되는 많은 세계를 지나야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전의 극락에 대한 묘사는 매우 화려하다. 극락세계는 온갖 보물로 장식돼 있으며, 연꽃에는 언제나 연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고, 향기로운 냄새, 아름다운 음악이 넘친다. 여기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극락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묘사이다. 그들은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만 하기 때문에 불화와 부쟁이 없고 사랑과 화해가 일할 가득하다고 이 경전은 쓰고 있다.

경전의 이같은 묘사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다룬다. 문제는 그 같은 이상세계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불교의 선사들은 매우 직설적인 방법으로 가르침을 베풀었다.

옛날, 어느 선사에겐 한 젊은이가 찾아와 정말로 극락과 지옥이 있는나고 물었다. 질문을 받은 스님은 다짜고짜 밥을 한대 후려갈겼다. 화가 난 젊은이는 밥을 빼고 스님을 쫓아내려 했다. 그 순간 벽처럼 스님의 한말씀. "잠깐,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젊은이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는 칼을 내던지고 노선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노선사가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극락일세."

극락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 한바퀴만 돌려놓으면 된다.

수백억원대의 정치비자금 숨겨놓았다가 들롱이 나 안철부절 못하는 전직대통령이 있다. 그는 아마 지금 지옥에 떨어진 듯한 기분일 것이다. 그러나 그곳은 누가 밟아 놓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걸어들어간 지옥이다. 그렇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 뿐이다. 한시라도 빨리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국민앞에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비는 것이다. 물론 용서하고 안하고는 분노한 국민들이 할 일이지만,

홍사성
표교TV 제작국장

동국의료원 학교발전기금 기부 21개업체 1억2천여만원 모금

동국의료원(원장=조재호)은 동국약품(대표=공화춘), 종근당(대표=김종환)을 비롯해 총 21개 협력업체가 기부한 발전기금 1억2천8백80만원을 지난 23일 본교 총학실에 전달했다.

이로써 27일 현재까지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은 44억7천여 만원이다.

5·18책임자 처벌 촉구 총궐기·국민대회결의

5·18관련자 처벌에 대한 국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5·18광주항쟁 학살자 처벌을 위한 제2차 총궐기와 제6차 국민대회가 각각 3일과 4일에 있을 예정이다.

제2차 총궐기는 오는 3일 총학생회 1차 선거유세 후에 있을 예정이며 그 다음 날인 4일에는 5·18광주항쟁연합회와 한총연등이 결의하는 제6차 국민대회가 5·18관련자 처벌

에 대한 국민 의지를 표명하는 가두시위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공4) 측은 오는 11월말경 5·18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맹휴업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총정

▲민대진(화학)=1995년 한국생화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The study on components from umbilicaria hyperborea 발표자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수산대 방문.

▲조암(산업공학)=대한 인간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원격 조종작업에서 3가지 시각제한 조건하의 조정수행도' 발표자
27일에서 28일까지 인천대 방문.

우리 이웃에 사랑을 베푸는 대학이 됩시다

어떤 할머니의 겨울나기

당중에 사는 김마음(81세)할머니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TV에서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그 기간도 예년에 비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예보하는데 당장 남들처럼 김장은 못할 지언정 따뜻한 온돌방에서나 지낼 수 있을런지, 평소처럼 하루 두끼라도 솜아 먹을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김할머니는 흔히 무의탁노인이라 불리는 생활보호 대상자다. 노령으로 인해 눈이 어둡고 건강이 좋지않아 거동마저 불편한 상태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기준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 탓에 김할머니가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후원받는 지원금은 만70세부터 79세까지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 월2만원(80세이상 5만원)이 고작이다.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각각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나뉘어 지원혜택여부가 다른데, 전자의 경우 △65세이상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출산전후 1개월의 기간) △근로능력없는자를 대상으로 '효적상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전무한 상태'에 처해있는 이들만을 선정·관리 한다. 후자의 경우는 김할머니의 경우처럼 '효적상...'의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정부지원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김할머니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부양능력이 있는 친족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

겨울(6개월기준)이면 거북보호대상자들에게 봉사부에서 지급하는 연말 두장값 1월 750원의 연료비도 후원받지 못하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이들은 놓여있다.

김할머니의 경우처럼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이들 무의탁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의료보호혜택 의료비의 80% 감면혜택과 긴급구조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월 10kg의 쌀이 고작이다. 이 또한 부정기적이고 그나마 이 혜택이라도 받기위해 많은 무의탁노인들이 신청 접수 창구에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접수자중 절반만이 운 좋게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이들에게는 앞에서 밝힌 노령수당과 긴급구조, 의료보호혜택을 받게 되는 것 외에 취업사업지원에도 나갈 수 있게 된다.

4명으로 이어짐

단 한번의 사랑일지라도

대학의 학문과 지성은 캠퍼스 테두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공존할 때 비로소 참다운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지역사회와 같이하는 대학으로 그 역할과 위상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일이 바로 대학 발전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대학은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지역사회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대학이 지리한 중구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의 소외당한 삶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건네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첫걸음을 놓고자 합니다. 전통국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1차) 안내

활동내용: 자매결연-무의탁노인/소년소녀가장/복지시설 수용자 등
자원봉사-노인취로사업동행 활동/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봉사 활동/위로 공연활동/물품노인무료급식 등

신청단위: 각 학과·학년 학생회/동아리/동문회·학우회·동호인 등 10인 이상의 단위

신청마감: 1995년 11월 3일

신청장소 및 문의처: 봉사총무부 (전화: 260-3491~2)

동대신문사

열린 글터

작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독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번게시판이나 ID: dpress메일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661)770-2057

소외된 노인 부지기수 "관심 쏟는 동국인 되길"

며칠전 점심때 밥을 먹으러 동국 관식당에 내려갔는데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다.
밥을 타려고 손가락이랑 젓가락이랑 쟁기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식사를 못하시고 계속 아예를 보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길래 왜 식사를 못하는 걸까 하고 계속 보았더니, 그만 식사하시다가 앉으신채로 실려들...
후지조 여기저기 뒤고 계셨다.
너무 마음이 아왔다.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답답이 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부들부들 떨고 계시길 보니깐 풍자라고도 드산 모양이었다.
엄마전 외할머니께서 우리집에 오셨을 때였다. 예기도 많이 안 해드리고, 바쁘다고 늦게 늦게 들어가고 아침에 일찍나온다고 인사도 안 하고 나오고 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엄마전 외할머니께 '아침햇살'란에 난 글이 기억이 난다.
자식들의 도움을 받지않고 꼬장꼬장하게 살아오신 할 할머니께서

나중에는 자주 조급전의 일을 잊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노인 복지 시설에 혼자 들어가서 생의 나머지를 살아가시는 내용이였다.
노인분들을 꼭 사회에서 책임진다는 것이 바람직 하지는 않지만 장중단 공원에 그렇게 많이 서성어시는 할아버지들... 그리고 낯설은 곳에서 실례를 해 버려서 어쩔줄 몰라 하시는 할아버지들을 그냥 그렇게만 계시게 해서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는 2시간 후에 시험이라 그냥 그 할아버지를 의면해 버리고 돌아섰지만, 잠시동안 눈을 들어 세상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주 바쁜 시험기간이다. 자신의 일에 아주 아주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또 바쁜 생활들에 몰두하느라 잊어버린 우리 주위의 세상에, 가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크린 동국인이 되었으면 한다.

김혜란 (ID: Seaweed)

'망언범람속 일본어...웬말' 기사를 읽고 과특성 살린 행사로 이해해주길

'문제의식 결여된 일부 학술계 행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관공경 영학과의 모 학우가 쓴 글에서 몇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자칫 일어일문학과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이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끔 노력하는 마음에서 편을 들게 되었다.
개간이 시작되고 본 과에서는 나름대로 가장 큰 행사라 할 수 있는 학술제에 대한 고민과 구성 및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호 동대신문(제1185호) 기사를 살펴보자. '하나의 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무리야마 총리의 망언으로 어수선한 이 시절에서 향의는 문화광정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고 환호하는 청중의 모습을 유쾌하게 바라볼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어딘가 알 수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이번 학술제는 학교 전체의 큰 행사가 아니라 단지 소규모의 과에

서 나름대로 과의 특성을 살려 열심히 준비했고 고된함으로 이루어졌다. 굳이 비교하자면 영어중문학과와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단지 일어일문학과에서, 시기가 그러했기 때문에...라는 논리는 사회적 정점에 편승된 일종의 일어일문학과 전체에 대한 반발심 리로밖에 파악할 수 없으며 여기에 헛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본인은 위에서 학술제를 예로 들었다. 본명 기사내용에는 일본행사, 즉 일본어 가요제만 부각시켜 얘기했지만 이번 학술제 사업이었던 일본어 시화전, 일본만화영화상영, 일어연극제 역시 본과의 중심구도에서 따라 진행되었고 그 기사의 논리라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 학과의 중요사업인 학술제를 본과의 기획의도라든지, 학술제 전체준비과정에 대한 말한번 듣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파악했다는 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무책임함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병우 (인문과대학 일문과)

'고시가뭇'...수험생 노력부족만 탓해서야 식당·장학금지급 등 헛점 수두룩

얼마전 사립시험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학교에서는 합격자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하나도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합격자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2년연속이고, 행정고시, 의무고시, 기술고시, 일반고시, 법원행정고시 등 각종고시에서 작년과 이어 아직 한 번의 합격자도 못보고 있다. 과연 준비하는 수험생의 노력부족으로만 그 이유를 들기에는 미심쩍은 면이 있어 몇가지 지면을 빌어 밝히고자 한다.
우리학교에는 각종 고등고시 준비생을 위해 84년도에 지은 계산고시학사가 있다. 계산고시학사 사생으로서 선결해야 할 문제점을 나름대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고시학사내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준공이후 계속 운영해오던 식당을 수지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폐쇄해버리는 것은 정말 유치한 착상이다. 급식을 겸해 공부함으로써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대학교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고시학사내에서 해결하고 있다. 그곳

에서 이윤은 애당초부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학교에서도 많은 합격자를 내기 위해 투자하고자 한다면 우선 식당부터 당장 운영하기를 바란다.
둘째, 총동창회에서 매년 지급해 오고 있는 고시장학금을 공경하고 공개적으로 지급하라. 이 장학금은 졸업한 선배님들이 모아 주신 것이니만큼 책임지고 있는 교수님은 자기 재량대로 사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장학금은 공개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래야 수험생으로서 사기도 높이고 졸업 후에도 학교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갖지 않을까. 더군다나 모든 혜택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어야 할 고시 1차 합격생들조차도 장학금 수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번 학기에도 동대신문에 총동창회에서 5백만원이 전달되었다고 한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측은 과감한 투자를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기를 바란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고시합

격생을 한명도 내지 못하는 학교는 찾아보기 힘들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고시 합격생이 나왔다. 학교측의 의지로 불과 몇년만에 고시명문이 된 현양대의 예를 보자. 과감한 투자와 수험생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격려로써 매년 많은 합격생을 내고 있다. 고내에 많은 투자를 여유가 없었지만 실추된 교우를 선양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과감하게 투자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갈수록 아래에서 아무런 노력없이 감이 입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 고시학사 사생들의 생활은 불면까지 짜여 있다. 아침 먹을 곳을 찾아 학교 앞을 서성거리는 모습속에서 고시 동국의 미래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는가. 고시 학사에 애정을 갖고 있는 총장님, 사강님들 기대해본다.
정원동 (계산고시학사사생·정외94학)

문화행사, 아련한 추억거리로 남아 내실있는 행사로 대학의 본모습 찾을 때

지난주 월요일 주변에서 있었던 불교 미술학과 작품 전시회를 돌아보며 잊혀져가는 대학의 문화행사에 대한 아쉬움에 20여년전의 대학 시절을 되돌아 보게 되었다.
70년대의 대학 문화행사와 근래의 대학 문화행사를 비교하여 볼때 너무나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대학 생활에 있어 최고의 낭만을 느끼고 사고할 수 있는 것은 축제 행사라 생각된다.
인과대학, 학과별, 동아리별로 주관하여 펼쳐지는 각종 문화 행사들로 작품전시회, 초청강연회, 연극공연, 연주회, 모의주주총회, 모의국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연상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학교의 문화행사를 접할 수 없어 대학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대학에서 문화행사의 장이 펼쳐지지 않는 것은 문명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의식의 변화 등 많은 변화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라면 학생들의 사고 변화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대학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는 몇가지가 열리고 있는가? 몇몇 동아리가 주최하는 공연회 등 손님을 수 있을 정도로 불과 할 것이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강연회로 70년대 초 몇회에 걸쳐 실시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 신일생 교양 특강 중 '하루라도 당시 모교에 재직하신 고 양주동 교수님의 월요 특강이 기억난다.
중강당을 가득 채운 자리에서 "또 한발 올라 갔네 더욱 멀리 네다 보네"라고 시작되는 교양특강 몇몇 동안 되돌아 가는 감이있지만, 새로이 시작되는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까지 많은 인기를 얻었던 강연회라 생각된다.
이러한 교양 특강을 통한 대학생들이 더욱 기대와 포부를 갖게 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매주 월요일이면 갖게 되는 교양특강 그 시절 대학이던 누구누가

기다려졌던 시간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의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한 강연회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가는 행사가 아닌가 느껴지며, 맑고 청명한 계절 가을에 우리 대학에서 좀더 많은 문화 행사가 많은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펼쳐질 것으로 기억되는 신일생 교양 특강과 소리에 맞추어 여겨 춤을 출 수 있는 흥겨운 한마당, 녹아온 잔디 마당에서 갖는 Sing Along 한마당,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든 오솔길에서 펼쳐지는 시화전 및 작품전 등.
언제쯤이면 학교에서 다시찾는 문화 행사의 재건이 대학의 낭만을 만끽하고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날이 올런지?
우리 대학인 모두가 빠른 시일내에 다시찾는 대학 문화행사를 기대하여 봅시다.
차준환 (경주 충무과 충무과장)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노후건물방치 언제까지...

지난호 동대신문(제1185호)은 대략적으로 별 무리없는 내용들이었다. 다만, 그중 지방학생들의 편의와 안정적인 학문정진을 위해 세워진 기일학사문제에 관한 기사는 학우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못하게 하였다. 기사를 접하는 순간 상충백화점사고와 같은 끔찍한 장면들이 연상되었다.
본 모니터는 본교의 기속사가 대학교 기속사중 가장 시설이 낙후되고 학생편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아무리 낙후되었다하더라도 천정이 내려앉아 급방이라고 부르지하려고 한다는것은 실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도대체 학교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란 생각이 든다.
기속사생들의 보수요구에 학교측은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한

다. 건물이 내려앉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이런 학교당국의 무사안일한 태도는 기일학사에 국한되지않는 않는다.
한달전 비가 많이 왔을때 학원관과 명진관 비가 새던 것이 생각난다.
또한 미술학과 조소전공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영장 건물도 너무 낡아서 위태롭다고 한다. 요즘 우리학교가 안고있는 문제를 보면 학교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총체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재단 전입금등 재정확충없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당국을 보면 기속사생들의 투쟁에 연민의 정이든다.
유동선 (경상대 정보관리과·본사모니터)

동/문/칼/럼 비자금의 출처

한때,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얘기가 회자됐다. 요즘은 그 탁 치니 억이 '4천억'으로 뛰었다. 4천억 비자금 때문인데 4천억원은 평범한 월급쟁이가 7백28년 4개월 동안 한푼도 쓰지않고 저축해야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을 보너스를 포함해 1백28만5천8백원으로 계산한 통계청의 1/4분기 계산으로 그렇다.
누군가 4천억원을 갖고 있다면 지난 93년 2월부터 은행에 넣었다면 지금까지 이자수익만 약 1천억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 서민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액인데도 요즘엔 이웃집 아이 이층처럼 친숙하게 들리니 어쩔일인가?
독재자 마르코스 전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86년2월 부정선거로 또 대통령에 당선 됐었다. 그러나 국민의 지탄을 못견디고 결국 하와이로 탈출해 망명중 세상을 떠났다.
이 마르코스가 스위스은행에 빼돌려 놓은 비자금 5억달러(약 4천억원)가 최근 다시 탈출이 됐다. 이 5억달러중 1억달러(약 800억원)를 마르코스 집권당시의 인권침해자들에게 지급키로한 92년 하와이법원 판결에 마르코스의 미망인 이델다 죽이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20여년전인 지난 74년 이디



오피아의 셀라시에 황제가 스위스은행에 숨겨뒀던 비자금이 당시 우리 돈으로 4천억원이었다. 그때 셀라시에에 그 4천억 때문에 목숨을 구했다. 당시 혁명군에 셀라시에에 사형선고를 내렸으나 미국의 중재로 4천억원은 군사정부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처형을 면했다.
아무리 위대한 '솔로몬'왕의 후손인 셀라시에라고 해도 4천억원의 비자금을 지나쳤다는 게 당시의 여론이었다. 만약 그도 민생을 위해 썼다면 죽는날까지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지닐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검찰은 전직대통령이 쓰고있는 돈 4백85억원 때문이 풀지않고 있다. 모두가 인권의 어리석은 탐욕때문이다.
김병길 (경상일보 편집국장·국문71학)

목먹골

11월12일 오후2시에 우리의 선배인 홍순열(남강7기) 선배님께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문의처(동문회장) = 015-130-9156

김도부의 회장이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추계대학연맹에서도 좋은 성적을...
-제일 예쁜 女劍士(wnd kim)

사회학과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과축전을 축하합니다.
-어느 94

성훈아(dog) 생일축하해!
-R.O.T.C 사회과

수고하셨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무분모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수고가 많은 여러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합니다.
-부락 황독

알립니다
문계구름의 창립제가 11월11일에 있습니다. 문계구름 여러분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11월27일, 동·조20기의 이쁜이 수경이의 생일을 축하한다.
-동계조사연구회 20기

11월30일은 신방과 이쁜이 유진이 생일이야!
-숨미가

광고학과 이쁜이 숨미언니 생일이 11월30일이야요.
-유진

11월11일, 국문91 자준이의 생일을 조금 축하합니다.
-국문 93

동/학/광/장

중안노래매 아롱 가을공연이 10월31일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와 주세요.

지리교육과 도보담당사 탄생 10동 사진전이 10월26~28일까지 있었어요.
-포 마시는 지리교육과

지리교육과 노래패가 드디어 부활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세요.

제7회 하나우리제의 성공을 빌며
-회계(야) 깃발

열심히 합시다
800의 장한 모습과 산공91들의 일로매진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낸다. 더 열심히 하기를...
-회합이

그리고...
HITEL 동국대 통신동호회 여러분! 보람찬 학교생활하시고 모임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K2 dgu CAPS

자·과·연에서 북한산의 가을을 흠뻑히 간다.
-자·과·연 등반팀

저는 조우일(Joel)입니다. 저는 미국사람입니다. 친구로 지내요. #387-0867.

늦가을을 남기고 군대에 가는 현일아! 내가 없는 학교가 무척이나 허전할 것 같구나.
제한된 공간이었지만 생각만은 무한대로 키워, 훗날 맛있는 모습으로 재대하기 바란다.
부디 건강하렴...
-교육학과 한 학우

목먹장터
11월32일 1예가X8개 합니다.
-303-9159 (저녁9시 이후)

〈구내식당 식단표〉

다함관식당	
30(월) 소고기볶음(1000)	문육볶음(900)
31(화) 오징어볶음(1000)	감자탕(1500)
1(수) 만두국(900)	정육간식(1200)
2(목) 순두부찌개(700)	계축볶음(1000)
3(금) 카레라이스(700)	소고기부숙(1000)
4(토) 콩나물국밥(700)	소제자매볶음(1000)
동국관 학생 식당	
30(월) 부대찌개(900)	문육볶음(1500)
31(화) 육개장(1000)	고구마야채(900)
1(수) 어묵국(700)	반계떡볶(1000)
2(목) 사골우육국(900)	회덮밥(1000)
3(금) 콩나물국밥(1000)	두부전골(900)
교직원 식당	
30(월) 청국장찌개(2000)	왕치회덮밥(2700)
31(화) 파스타토핑전골(2200)	왕장정(2500)
1(수) 정월말(2500)	도라지채운밥(2200)
2(목) 콩나물국밥(2200)	채지갈비구이(3000)
3(금) 중식중점찌개(2500)	오모리(2200)

온방골

수고하셨습니다
D·K·B·S방송제,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병원이 힘좀내고 다녀...
-형이

백상채전에서 화학과의 당당한 우승!! 선배님을 수고하셨습니다.
-95 민정 삼촌 형우

알립니다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사회특학과 학술제 하는데 많이 찾아주시고요. 연극 동아리 그루터기 공연이 10월31일에 있습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더브러

11월에 유로스 댄스파티가 있으니 많이 오세요.
-유로스 4기

그리고...
사·복 그루터기 31일 연극공연 고생한 만큼 결실을 맺기 바란다. 그리고 영원히 뿌리내리길...
-산

즐거우시는 선배님들의 앞길에 여명이 비추리!!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졸업 축하해요.
-적십자

국문 야구부 전 좌익수 최환규 선배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메롱이

You loss 정기공연 준비하느라 힘드시죠? 힘내라 함! 나를 아는 모든 이들 승리의 그날까지...
-Jn

11월5일은 불교야동 4학년이 재학중인 김은경이의 결혼식입니다. 우리 모두 축하하여 한 마디! 잘 살아라.
-지혜

11월30일을 맞이하여 신에 너도 드디어 23살이 되는구나. 앞으로도 좋은 일만이 있기를 바란다.
-대규

국악과 친구들아! 우리 11월 8일 9일 정기연주회 꼭 좋은 성과 거두도록 열심히 연습하자. 파이팅!!
-악동들

Newsweek 공개 발표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열띤 성원 부탁드립니다.
-95 MK Park

사우회에 앞서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 92 이창기

장가야 졸업에 앞서 축하하고 졸업전까지 뜻있는 캠퍼스 생활을 누리기를 바라봐...
-철 태들

온방장터
종류:가야 12만 싸이를 자전거(Carex) 가격:7만원, 연락처:남자기속사 보현동 109호
-Tel:770-2567

오토바이 VF125cc 판매 67만원(초정가)
-호출:012-472-8426

대통령의 '통치자금' 파문

구조적 권력부패 청산계기 돼야 한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역대 대통령의 권력형 검은돈이 노태우 전대통령 자신의 입을 통하여 전문학적인 비자금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한국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실마를 제공한 국민들은 권력형 부정부패의 죄나라할 심정을 확인하고는 그 엄청난 규모에 경악하면서, 어디가 끝인지 알수없을 정도로 연일 불거져 나오는 부패의 사슬에 분노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3백억원의 차명계좌가 비자금으로 확인되었을 때 일반회사이들이 한문도 안쓰고 월급을 모으면 2천년쯤 걸리는 액수라는데 실소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액수는 한 톨방 자고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이제는 계산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은근한 솜자금을 마비시키고 말았다. 3백억, 4백80억, 9백90억, 1천7백억, 5천억, 숫자를 따라가면 국민들은 다음 숫자를 기다리며(?) 이것이 끝이 아닐것이라고 의심할 지경에 이르렀다. 총체적 부패가 총체적 불신을 야기시킨 것이다.

벼랑끝에 선 노태우씨가 마치못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한 것까지는 좋으며, 사과내용을 접한 국민들은 오히려 더욱 분노하고 있다. 진심으로 뉘우침이 없는 철면피한 사과문 속에는 여전히 "통치자금"이요 "정치적 관행"임을 강조하고 있고, 기업인들의 "성공"으로 조성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임 2년만에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이 갖고 있었던 거액의 남은돈 역시 어쩔수 없는 "정치상황"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사교에 상관없이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검은돈의 진위가 가려져야 하지만, 참담한 국민감정을 어떻게 치우려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사실 부정부패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떠한 국가사회에도 존재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부패의 전풍이 정치적으로

시사논단

심익섭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교수



블패 근대국가의 효율적인 운용의 미숙, 특히 법이나 제도상의 취약성 또는 정치행정적 불합리성과 연결되면서, 오늘날의 구조적인 정경유착과 같은 대규모 권력형 부패 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패현상은 스스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자기영속성"의 특징과 함께, 조직까지도 위기에 몰아넣는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는 항상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제 놀란 가슴을 가다듬고 "노태우 비극"의 교훈이 무엇이고 어떻게 새로운 시간을 맞을 것인지 생각할 때이다. 국민 모두가 한바탕 "씻김극"이라도 벌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 스스로 솔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부터가 만만치 않다. 정치권은 이미 대통령의 비자금중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으로 흘러나간 부분을 놓고 정과정에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누가 덜 거지말"하는지를 놓고 서로 물고물리는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이 혼란한 와중에서 5·18위중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던 검찰은 제대로 공개적인 수사하면 당당하게 말하면서 이번에도야말로 정치자금에 대한 새로운 수사관행을 확립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놓고 정치권이나 검찰이 갈등을 줄이기 위한 탐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실 노태우씨의 대국민 사과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당시자인 노씨 개인의 노력과 함께 그 행간에서 또다른 구조적인 부패의 먹이사슬을 찾아낼 수 있는 단

초를 발견할 수 있다는데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어쩌면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던 한국정치의 구조적 모순과 가려졌던 치부가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가 임박하고 있다는 예감까지 들게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부정한 돈의 고리를 철저히 풀어나간다면 과공을 반전시킬수 있는 골라구가 나올듯한 틈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진실은 애국될 수 없다"라는 역사의 경험이 증명하듯이, "통치자금"이라는 부패의 전횡적 실체를 이번엔 분명히 파헤쳐 표상을 분다면, 오히려 그동안 평에처럼 따라 다녔던 한국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전회위부의 기회도 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노태우씨 개인의 부패인지 조직전체의 구조적 부패인지의 여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결국 부패적결 또는 대통령의 비자금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은 최소한 다음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국가권력 내외적으로 얽혀있는 부패의 먹이사슬, 즉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이기회에 분명히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와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특히 적당히 넘어갈 경우 갈수록 사회규범 일탈행위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공은 노태우씨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넘어왔다.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과 검찰등 국가기관, 그리고 사기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노씨가 검은돈을 갖고 주변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포진했던 이들 조연들이 연기를 잘해주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사실

선거, 정책대결의 장으로

중간고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이번주부터는 학생회 차기구의 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과대의장선거는 이미 치러졌으며 단과대학생회장과 총대의원회 선거는 한두차례의 유세가 진행됐고 투표에 임박해있다. 또한 총학생회와 총학생회는 후보자들 특이 지난주 마감되었고 4차례의 유세와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일단 선거의 중요성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기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2학기의 3분의2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 학생회를 준비하기위한 모습은 이른감이 있다. 2학기는 사법학이나 잘 치르면 된다는 생각과 성급한 선거준비로 보편적인 견해로 자리잡은 듯하다. 선거에 임하며 있던 학생회간부들의 사퇴로 인해 학생회실은 쓸쓸하기 그지없다. 남아있는 간부나 사퇴한 임원이나 한해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잘못에 대해 사과의 대자보 함으로써는 부족할 듯하다. 이런 모습이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여지를 줄 수 있다. 지난 27일 무산된 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총대의원회의 유세가 이를 증명해준다. 대의원들의 직위를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총대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관심이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고 이후 선거에도 학생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할수 있겠는가. 한편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단과대도 있다는 사실은 학생회 책임문제에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어쨌든 아쉬움속에 선거는 시작되었고 이제는 유권자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올바른 선거준비와 정책에 힘써야 한다.

내년의 대학총합평가인정제, 대학시장개방을 앞두고 무엇보다 학부제의 전면 개편속에서 학생회선거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존의 학과개념이 점차 없어지고 학부로 전환될때 이 때까지 학생회의 위상차도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소모임이나 학회·동아리의 활성화 모색이나, 학부속에서 효율적인 체계의 정착이나,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느냐가 과제로 남아있다. 학생들의 차치 기구이기 때문에 스스로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지금시기에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후보자들 역시도 많은 고민과 준비를 정속속에 제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길 바란다.

흔히 선거를 대학문화의 꽃이라고 말한다. 학생회선거는 올바른 학생회 사상을 평가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이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생산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정도를 벗어난 비방과 흑색선전은 없어야겠다. 지금 정계는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파문에서 불거진 선거자금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도덕성을 상실한 기존정치권의 부정부패와 흑색선전을 우리대학에서만은 답습하지 말아야 하겠다.

올바른 선거는 후보자만의 몫이 아니다. 유권자의 권리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을때만이 제 빛을 낼 수 있다. 이번 선거가 동국인이 모두 함께 하는 한판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총국판평

강성수



금년도 세계개편안은 조세정책의 최대관건인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치 논리가 크게 작용한 졸속행정의 전횡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세계개편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정부의 세계개편안이 발표되면서부터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국회심의과정에서도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우선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이 결여돼 소득분배의 불평등만 심화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고소득층의 세부담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상향 조

◆ 세법개정안 진단

공평성 잃고 분배격차만 심화

정한 것과 5년이상 장기 저축에 대해 30%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한 것, 양도소득세 완화조치가 그 대표적 인 사례로 결국 소득재분배 기능을 후퇴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특히 3만1천명 정도에 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납세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치한 종합소득세 경감, 금융소득원천과세를 인화, 양도소득세 완화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높이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예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도 이번 세계개편안의 문제점이다.

아울러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한 제도의 표본으로 알려진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의 확대는 제도 자체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과세불공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돼

야 할 과제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내부부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당초 김영삼정부가 약속한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를 비껴나가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요건이 대폭안화됐다는 게 전문가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특히 종토세의 과표현실화 및 실효성을 강화는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땅값을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의 약속을 뒤엎고 실효성을 95년 수준인 0.1%에서 더 올리지 않겠다고 밝혀 개혁의지를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세원을 넓히면서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고 역진적인 간접세보다는 누진적인 직접세 중심으로 세제가 개편돼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아울러 과표의 현실화를 통해 재산과세를 강화해 실효세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세전문가들은 이와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출것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 산림, 퇴직소득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포함할것 △소득세율제도와 및 조세감면제도 폐지 △종합토지세 과표를 빠른 시간내에 100% 공시지가 전환할 것 △소득조차이익의 월별 △재산소득에 있어서 거과과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를 낮추고 보유과세인 재산상승과 종토세 강화등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조세법 (시민의 신문경제부기자)

Advertisement for Maxim Rich Aroma.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an drinking from a bottle of Maxim Rich Aroma. Text includes '새로운 향기의 세계가 시작된다', '향기 좋은 커피 맥시 리치아로마', and '개끗한 뒷맛, 깊은 향기'. A small image of the product bottle is shown at the bottom right with the text '향기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and '신제품'.

기획서리즈 (1회)
중구지역의 소외된 이들을 찾아
 본사의 자원봉사캠페인 '열린대학, 봉사하는 동국인'의 실시에 맞춰 사회부에서는 중구 지역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의 실태를 취재·보도합니다. 총5회에서 걸쳐 진행될 이번 시리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자원 봉사
지속적인 봉사활동 필요
보여주기식 지양해야

무의탁 노인들이 자기의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싫어 후원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그들 생각의 잘못으로 돌리기에 문제점이 있다. 후원자들이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방문할 때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 봐야한다. 보여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절과 연말에 무의탁노인들의 가정에 잠시나마 들려 그들의 방문을 자랑으로 하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 그들을 실망시키고 허탈에 빠뜨리기까지 한다. 또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자원봉사단체로 가정하여 그들의 종교를 믿으라는 식으로 돕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무의탁 노인들이 자기에 맞지 않은 종교이지만 그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성의를 받고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신당2동사무소 직원 문성수씨는 "보여주기식의 도와주는 인하는 나만 못하다"며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도움이라면 일시적인 자기만족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 말한다. 거창한 선물공세와 많은 후원금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필요한 것 있습니까" "몸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따듯한 안부인사가 훨씬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선다면 우선 무의탁노인들의 실생활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직접 부딪히며 느껴야 한다.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 핵가족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 가족이 없는 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은 '정'을 가장 아껴야 한다. 이러한 정인 경제적, 즉 물질적으로 도움만 준다면 '정'이 곧 돈이라는 위대한 생각마저 생길지 모른다. 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같이 생활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도와주세요'란 피상적 생각만 하고 실천에 적극적이지 못한다면 그들의 높은 취지 또한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한두번의 방문으로 일시적인 도움만 준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보여주기식의 걸치레에 불과할 것이다. 지속적이고 직접 부딪치는 실천적 활동이야말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애정의 표현이다. (한상훈 기자)

겨울이 두려운 사람들

최저생계비 못미치는 지원금으로 생활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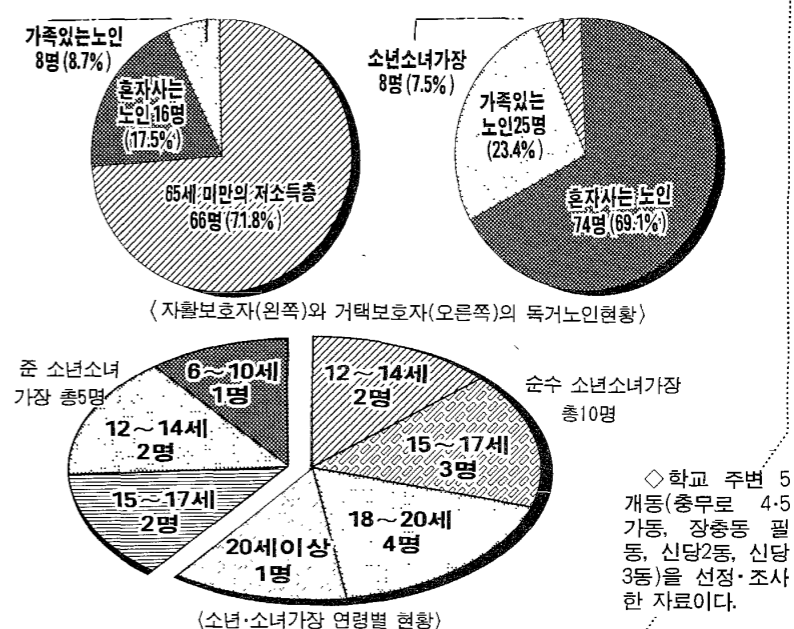


◇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취로사업은 길가의 벽보제거, 잔디깎기 등의 일거리를 할당하고 1만 7천원의 일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거동이 능한 노인에게는 한정이되어 있어 몸이 불편한 노인은 생활이 여전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1면에서 이어짐
 취로사업은 대개 이웃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며 지속적인 지원이 전무한 이들에게 길가의 벽보제거, 잔디깎기, 재활용품정리 등의 일거리를 할당하고 1만7천원의 일당을 정부에서 지급한다. 그러나 이것도 김철민씨처럼 거주조건 불리한 노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보면 혜택이라고 할 수조차 없다. 이에 대해 한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직원은 "취로사업은 일종의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오전에 조금 일하고 일당을 지급하니 차라리 이 사업으로 정부지원금을 늘려주는 쪽이 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결국 취로사업은 저소득층, 도시빈민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한정근무자의 말처럼 시정되어야 할 지원방식이다. 그러나 정부지원 체계의 실패와 허점은 비단 취로사업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구부기준에서부터 보더라도 실정을 외면하고 몇가지 예매모호한 기준만을 내세워 선정 혜택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 복지지원체계 전반에 광범한 행정편의주의의 한 단면이다. 소년·소녀가장과 연고없는 노인들이 포함된 거택보호자는 중구관내에만 3백88가구 4백54명. 이들에게 생계보호비 명목으로 배정되는 정부지원금(국비50%+시비25%+구비25%)은 한달에 2천7백여 만원선으로 1인당 7만5천원 이밖에 부정기적이라는 하나 주가비 명목으로 1가구당 월 3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기도 한다. 이것도 지난해 1인당 6만3천원의 지원

금에 비하면 1만2천원이 인상된 것이지만 이른바 최저생계비인 17만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복지단체나 독거가구의 후원금도 미미한 수준이다. 일례로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1일 부식비를 보더라도 배추값이 내렸다고는 하나 5천원선인데 비해 부식비는 1천200원이다. 김치조차 제대로 담궈주지 못할 형편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구청 복지관체자들이 따르면 정부지원금과 후원금을 포함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 생계보호비를 평균 1가구당 월 30만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올해 사업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번달부터 추가되는 주거비나 노령수당 제도 신설, 중앙 복지부의 지원으로 생계보호비가 인상됐다고 공치사하기 바쁘다. 그러나 실상 앞의 부식비의 실패처럼 인상을 겨우 물가인상률의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여전히 현실과의 격차는 멀기만 하다. 정부지원의 문제를 차치한다면이라도 중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할 후원금 모집이나 결연사업 등에 대한 자세는 후원이 있어야만 결연을 맺는 식의 소극적인 상태다. 예전처럼 일반기업체에 관공서가 뛰어다니며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관공서가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보여져 중단됐다고는 하지만 여러 후원자들의 전언처럼 후원자가 나설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재 관의 태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금까지 중구관내에서는 결연사업을 추진기 위한 별다른 홍보나 기획사업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높은 관공서의 문턱을 두드려야만 후원의 기회

가 일반인에게 주어지는 셈이다. 거택보호자들을 관리하는 관의 체계와 방법에도 많은 문제가 드러난다. 일선 동사무소는 복지담당 인력 1인을 두고 1달에 1번정도 무의탁노인들을 방문할 뿐이며 중구청에서는 명절이나 연말에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고작이다. 동사무소직원들은 "생계보호비는 무통장 입금하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는 일은 좀처럼 드물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지원상의 문제 외에도 관의 지원체계가 허술함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자활보호자의 자활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진행되는 교육목표다. 이는 지원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지만 올해 중구청에서는 4회에 걸쳐 70명의 연인원만으로 신당동 모리리에 위치한 대일컴퓨터학원에서 강좌를 열었을 뿐이다. 좀더 다양한 강좌와 교육공간, 피교육자의 확대를 꾀하지 못하는 행정이 아쉽다. 후원자가 거택보호자를 돕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통장에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하거나 일정한 단체나 재단을 통해 간접지원하거나 직접 가정방문해 지원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중구청 사회복지과 김두식씨는 "지금의 후원방법은 경제적 후원은 복지연장 정신적인 후원 즉, 팔팔이 되준다가 나 생활을 보살펴주는 일 등은 간과하고 있다"며 경제적 후원과 더불어 사랑이 필요함을 요구한다. 실제로 성정기에 사람이 필요한 소년·소녀가장의 후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들에게 송금되는 후원금은 무의탁노인들에 비하면 많은 편인데 그 후원자들은 그 아이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하지만 후원자들 대부분이 생업에 바쁜 탓에 거기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와관련해 김두식씨는 "이런 정신적인 후원을 해줄 수 있는 후원자로 대학생들이 참가했으면 한다"며 중구관내 주요 대학인 본교에서 자주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 후원자들의 후원이 갖는 문제점은 거택보호자에게 대상이 한정돼 서두에서 살며 반바와 같이 지원체계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연고는 있지만 무의탁 노인들에게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또한 우선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건강상태를 확인해주고 생활을 보살펴주는 일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곳 캠퍼스에서 멀리 않은 곳에 소외되는 이들의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되새겨 볼 일이다. (사회부, 취재협조: 중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



거택보호자 95, 94 생계 보호기준 ※단위(원)

지원내용	94년	95년	한달간총증감액	비고
쌀	12,830	12,830	-	1인/월
보리	1,385	1,385	-	1인/월
부식비	24,600	30,600	6,000	1인/월
연료비	16,200	18,000	1,800	1인/월
월동연료비(10~3개월)	8,100	9,000	900	1인/월
피복비	-	4,150	4,150	1인/월
한달생활비	63,115	75,965	12,850	1인/월

음악로 녹야원 유감

"킴은, 킴은" "킴백호~음"
 젊은이들의 한바탕 열정적 외침과 몸짓이 녹야원을 가득 메운다.
 '건전한 대학문화의 정발' 플랜카드 아래 거리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속속들이 모여, 약 3백여명의 수를 헤아린다.
 지난 26일 기성방 송사의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될 이번 경주캠퍼스 동아리 대동무회는 본교 락그룹 '솔메리아'의 공연을 시작으로 맨싱동아리 '유로스', 아카펠라의 유로파이 등 저세대대의 감성을 대변하는 다양한 공연으로 대중문화와 오렌만에 녹야원을 찾은 학생들과의 만남이다.
 기성방 송사 사회자의 특색있는 진행 솜씨, 행사의 시작을 전명(?)한 김갑주 부총장의 친조출연(?), 좌파의 동서(?) 자리를 마다하지 않은 전경들과 어울림,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학생들과의 환호성...모두가 유연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자연스레 모인 지금 우리들의 녹야원은 분명 현세대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다.
 이 자리에 비해 저조한 대의원 등록을, 흥흥없이 소수행사로 끝나버린 단

대학축제, 5-18관련 집회에 나타나는 열정함이 보여주는 의미는...
 녹야원을 찾은 학생 한 학생은 "요즘 학생들의 정치의식이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5·18, 5천의 비자금 등 대학의 기본적인 정치의식이 필요한 때"라며 그런 자리에 이만큼의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 아쉬워한다.
 이에 반해 한 학생은 "목적적 정치적 이데올로기 공중세 문화가 이끌어 가지 못하는 학생회 사업에 들어가는 학생회비가 아깝다"며 한창 선거에 바쁜 학교상황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학생회 사업에 유감을 표시한다.
 이에 또다른 학생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문화에 학생대표들 역할의 미진함이 아쉽고 감각적 문화만 쫓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잘 지켜야 할 것"이라 지적한다.
 "우리의 열정과 젊음을 드러낼 자리가 왔다"며 시작된 이번 행사, 행사가 끝난 녹야원은 가슴터치도록 울려 퍼진 전기기타소리와 '독재권력타도'를 외치던 선배들의 함성소리가 공중 울려 퍼졌다. (신형철 기자)

붕어빵 주식회사?

까와 가능성을 사겠습니다. 획일적인 붕어빵 인생은 사양합니다.

평가시험이 사라진다. 입사시험이 사라진다. 단편적인 지식평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능력과 자질을 평가합니다. 까와 잠재력, 기능성만을 사겠습니다.

Q: 삼성은 왜 열린채용을 생각하게 되었나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학력과 인품을 지나치게 중시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회풍조가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고 국가적으로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은 다양한 인재들이 자신들의 실력으로 세계와 당당히 겨루어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간편보다는 능력, 쉬운보다는 개성'을 존중하는 열린채용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열린채용은 어떻게 하는거죠?
 한마디로 학력에 관계없이 능력과 자질을 갖춘 누구나에게나 문이 열려있는 채용이죠. 과거의 학력과 지식중심의 평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종합적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단편적인 지식 평가위주의 평가시험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의사와 직성이 존중되고 다양한 인재 특성이 정량한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Q: 평가시험이 사라지면 무엇으로 평가를 하나?
 평가방법이 아날로그 열린채용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평가시험을 폐지하는 대신에 삼성 직무적성검사(S.S.A.T.)를 도입하여 잠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사안에 특별한 준비가 필요없는 시험이죠. 아울러 면접제도는 '열린채용'으로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Q: 삼성 직무적성검사(S.S.A.T.)는 처음 듣는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S.S.A.T.는 Sam Sung Aptitude Test의 머릿글자로서 삼성이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2년에 걸쳐 연구와 사전 검증을 거쳐 개발한 것으로 금년 하반기 공채부터 새롭게 도입됩니다. 단순 지식보다는 직무수행시 어떠한 상황이라도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본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영어시험도 안보는 겁니까?
 네, 별도의 영어시험은 없습니다. 단지, 국제화 시대의 필수 기본소양이라는 측면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공인시험(TOEIC, TOEFL) 성적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단, 올해에 한해서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전형 당일 TOEIC TEST의 기회를 드립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고는 하지만 막상 실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텐데요.....

물론 그런 열려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삼성이 체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검토해 보았을 때 이는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학력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삼성은 반드시 이 체도를 뿌리를 내리 우리 사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응시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엔 학력차별이 없는 사회를 열어갑니다.

SAMSUNG
 삼성

특별기획

관례에 명든 민심

소위 전
직대통령
이라는 사
람이 잘못
했다며 눈
물을 흘리
는 모습을
집합에 켜
지 이 시
대 이 나
라에 살고
있는 것이
서글프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남 선

노 전대통령이 진실로 모두 밝혔는지 아닌지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것보다도 왜 우리가 각종 의혹 사건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 낙담하며 분노를 느끼야 하는지, 왜 우리 스스로 뽑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관례에 따라 국민들의 돈을 좀 쥘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왜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복잡한 터질 노릇이다. 노 전대통령도 관례라는 말로 자신의 방법을 미화했는데 그 관례라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히게 할 따름이다. 세간에는 노 전대통령 대국민발표를 놓고 말이 많은가 보다. 비자금에 더 된다는니, 그리고 어떤 어떤이가 그 돈을 썼다는니, 누구 누구도 액수는 적지만 노 전대통령 못지 않은 비자금이 있다는 등 말이 많다. 특히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마치 굶주린 늑대 무리가 고기 한 점을 놓고 서로 싸우는 모습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만 묻고 싶다. 노 전대통령은 믿거나 말거나 지난 5년간의 통치기간 중에 관례대로 5천억원을 쥘 것인데 하는데 현재 자신은 깨달았다는 힘있는 사람들은 관례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니면 그 관례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길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 사실 우리사회에는 관례라는 이유로 상처를 입거나 입히는 경우가 많다. 작게는 시장가서 풍나돌 하면서 일단 꺾어달라며 한숨 더 쉰다는 것부터 이번 전직대통령 비자금까지 관례라는 이름으로 해온 잘못이 얼마나 많은가? 왜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히 사는 사람이 손해보고 바로 취급 당하는 사회가 됐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향간에는 이번 사태를 두고 노 전대통령의 입장을 죽은하듯 여기는 정신나간 사람도 있는가 보다. 들켜지만 않았으면 그 큰 돈으로 연연해서 잘 먹고 잘살면서 들키는 바람에 산통이 다 깨졌다는 이유다. 돈을 절대 안받았다고 필립 워던 한 정치인이 결국은 스스로 20억원의 거액을 관례대로 위조금으로 받았다고 할 정도로 이 사회가 거짓과 부패로 들든 마당에 누가 누구에게 들을 던지느냐는 희한한 황변이다. 하기가 성공한 쿠데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논리도 있다보니 잘못하고 들킨놈(?)만 억울하다는 말도 일견 일리가 있는 사회가 됐다.

불교방송기자

해외자매대학 교수 특별기고

미국대학의 한국문학연구 현황과 전망

고전·현대문학 균형있는 연구자 양성 시급

이 학 수

(미국 UCLA한국학학계 비교문화 교수)

문학을 학문이라한다. 미국에서 한국문학을 지난 35년간 대학의 정식과목으로 가르쳐왔다. 1960년부터 80년대 후반까지 한 교수가 우리 문학을 담당했고 그때쯤 하여 다른 두 대학에서 한국문학 담당자가 한사람씩 전공으로 채용됐다. 미국대학에서 한국문학을 소홀히 한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최근까지 세계에서 한국의 상대적 위상 외에)그중 셋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고전과 현대문학을 가르칠 자질있는 학자의 부족. 둘째, 정확하고 읽을만한 번역작품, 교과서 및 참고서의 부족. 그리고 세번째로 한국문학 수출을 위한 정부 및 학술기관의 집중적 노력의 부족 등이다. 이점들은 서로 연관돼 있으며 나의 글에서도 연관적으로 논의한다. 한국고전과 현대문학을 두루 전공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자가 서양에는 드물다. 고전문학을 가르칠 사람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프린스턴의 마이너교

수는 일본고전문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서양이나 일본이나 한가지로 일본문학을 낳은 원리를 통해서 일본문학을 이해해야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러므로 일본문학을 공부하는 필수조건은 일본어와 문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역사적이고 토착적 문화의 충분한 지식, 한국과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지식의 수용, 일본의 제2의 동아시아문학의 충분한 지식, 그리고 끝으로 일본과 중앙아시아문학의 충분한 지식 등이다." 마찬가지로 한국고전에 대한 연구에도 이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대학에는 한국문학 담당자가 한 대학에 한 사람만 있기때문에 한가지부터 현대문학까지 두루 가르쳐야 하고, 한국문학사상의 중요한 문제점을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즉, 전통적 기준에서 전통장르와 비정통장르의 구분, 두 장르 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문학적근에 입각한 방법론, 그리고 중국문자(한문)로 쓰여진 문학과 국문으로 쓰여진(나뉘며 독특한 전통을 이룬 국문문학) 문학사회의 상호관계등이다.

이런 여러 문제는 중국과 한국문학발전사, 문학장르, 장르코드와 사회규범 등의 지식을 구비해야 하고 또, 자기자위의 해석과 비평입장의 역사성도 똑똑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문학은 출판물 교과서와 번역작품 없이는 가르칠 수 없다. 내가 사회집을 편찬하고 문학사상 중요한 작품을 번역한 이유는 여기이다. 번역자로서 경험한 난점은 믿음만한 주해서와 전집의 부족이다. 이를테면 한국고전의 주해본이 없는 것이다. 왜 주해고전문학대계가 아직껏 없는지도 의문이다. 문학사상 중요하다고 하면서 문학적 연구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작품들도 있는데, 예컨대 용비어천가, 패관잡기같은 잡기, 시용향약보의 무가 등이다. 또 하나 알 수 없는 일은 우리 고전이 무엇이나하는 문제가 명백해져 있지 않다. 사학집을 편찬할때나 대학원생의 필독목록을 만들때마다 이문제의 부딪힌다. 국문작품의 어떤 전통문학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문작품중 어느 것을 택할것인지, 그리고 작품의 선택기준이 무엇인지 분명치않다. 우리가 국문작

품 특히 과거에 붙은시인 작품에 중점을 두어야하는지를 알린다. 그러나 동양문화권내의 그위치가 평가될때, 그런 작품들이 엄밀한 분석과 비평을 통할수 있는지는 미지이다. 우리는 번역을 장려하지만, 왜,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하는지는 점을 고려해야겠다. 사전에만 의뢰하지 않고, 작품본질과, 고전이나 현대문학사의 위치를 충분히 이해하는 번역을 요구한다. 그런 번역은 원작의 언어적(문화적 차이, 원어의 물질성, 원작자의 자기표현, 그리고 번역자의 결정적 간섭 등을 무시하는 것이다. 번역어의 문화를 지배하는 투명한 언어(그것이 포함한 가치와 믿은 체계까지)로 개작, 그 결과 번역이란 외국작품을 자기화하는 문화수용의 일부에 안된다. 우리작품의 좋은 번역은 번역어의 우세한 문화체계의 압력을 막을 수 있고, 원작의 문화적차이를 보존하고, 우리문화의 토착성을 가늠할 수 있는 최최한도로 유지해야 하겠다. 번역은 우리국민의 이미지형성에 영향을 주므로, 중요한 지정적(geo-political)역할을 할 수 있다. 각 문화가 다르듯, 각문자도 다르다. 번역은 원작의 차이성을 보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문학의 인기가 떨어진 이유의 하나는 그런 상태를 고칠수 있는 자리에 있는 한국학자들의 집중적 노력의 부족이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문학 해외수출의 중요성을 시인하지만, 최근까지 해온 일은 적다. 어떤 단체는 번역을 모집한다. 그러나 대개 번역자는 선택 작가나 작품의 문학사적 위치와 중요성을 무시하고, 자기 좋아하는 작품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 번역자들의 개인적의 외에 위원회 같은것이 번역할만한 작품목록을 만들어 주는것도

도움이 될것이다. 그런 위원회는 미국문단에 관한 지식과 번역작품이 비교문화과목에 채택될 수 있는 여부를 아는 미국에 있는 학자도 포함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조직적 사업은 문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만이 해야되겠다. 미국에서 한국문학의 장래는 어떠한가? 앞에서 한국문학이 중국/일본문학 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말했는데, 그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문학이 더 잘 소개되고, 더 많이 읽히고 연구되려면, 우리는 고전과 현대문학을 가르칠수 있는 젊은 세대의 학자들을 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대학원학생은 대개 현대문학을 전공하려한다. 고전문학의 연구는 너무 부담이 크고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원조로 마련된 자리를 지켜있는 한국문학교수가 없어서 몇 해 버려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고전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영어교육도 철저히 해서, 그들이 직접 한국고전을 번역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작가와 학자들의 협조, 그리고 동양/비교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동료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후자는 한국문학이 동양/비교문화과의 일부가 될 수 있으나 없느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의 교수와 연구는 국내문학연구의 수준을 어느정도 반영하기때문에 한국동료들이 꾸준히 좋은 비평서를 출판하기를 바란다. 내가 말한 모든 점들은 실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력은 우리의 공동의 목적달성, 즉 한국문학의 세계문화화를 도울 것이다.

한의대 투쟁상황

한의대 독자발전 위한 제도마련 요구 정부규탄 더욱 거세질 듯



전한련소속 1백80여명이 조계사앞에서 한의학 독자발전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93년 한-약분쟁으로 유급사태까지 갔던 분쟁은 정부의 한약학과 설치, 환약의료보험 실시, 공중보건 한의사제도 시행등의 약속사항을 받아내고 일단락되었다. 2년의 정부약속시행기간을 통해 95년 한약학과 설치문제가 먼저 거론되었으나 정부는 한약학과 설치 전면백지화를 발표, 한의학계에 큰 반발을 샀다. 이에 정부는 다시 '약대내 한약학과 설치'라는 한의학과 약학계 입장의 절충안적인 발표를 통해 일을 무마시키고자 했으나 분명치 못한 대안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지난 93년 한의학과 약학계의 대립으로 빚어진 분쟁의 차원을 떠나 당시 한의학 독자성에 개혁의지를 보이며 여러 기반제도를 약속했던 정부의 돌연한 발표 번복에 초점이 모아진다. 정부의 미온한 입장에 대해 한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정기·본2)는 "총선을 앞둔다 약학계의 표를 의식해 당시의 시정약속을 저버린 정부의 행태는 한의학을 기만하는 행위"라 분석하고 "한의학이 한국인의 건강을 담보로 정치농성을 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투쟁을 계속 전개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서 보듯 독자적 한의학발전 문제를 약학계와의 대립구도로 해석하는 차원에서 풀어나갈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의대측은 전국한의대연합(의정=이영욱·본교 본1 이하 전한련)을 중심으로 수업거부와 1차 상경투쟁을 끝내고 2차 상경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본교는 조계사에서 약30여명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2차 단식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일(31일)투표를 통해 유급결의 및 이후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번 투쟁에서 전한련은 각 학교별로 한의사 국가고시기부, 지역선전작업, 자전거 홍보단 등을 통해 시민선전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한의대측은 "이런 투쟁방법에 있어서 시민홍보에 역부족인것이 사실이다. 이런 단식투쟁이나 지난번 광화문 불거대 시위등 많은 투쟁을 벌였음에도 언론에는 아무런 보도가 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실제 기성언론은 이번 투쟁에 어떠한 시각도 제시하지 못하고 지난 93년과 같이 약학계와의 대립구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제는 일단 한의학이란 국민건강권이 담보된다는 문제인만큼 여론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국정을 운영 하는 정부의 태도에 많은 비판이 있어야 함은 자명하다. 이후 본교 한의학차원을 떠나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 학생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신형섭 기자)

제33회 학술상 작품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일관수행을 거듭온 본사 학술상이 올해로 3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동국의 학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응모요령: 3개 분야 모두 2백자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학과 함께 발표 제출기간: 1995년 11월1일~30일까지 입상작 발표: 1996년 1월1일자 본지 지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 (02)260-3491-2

제10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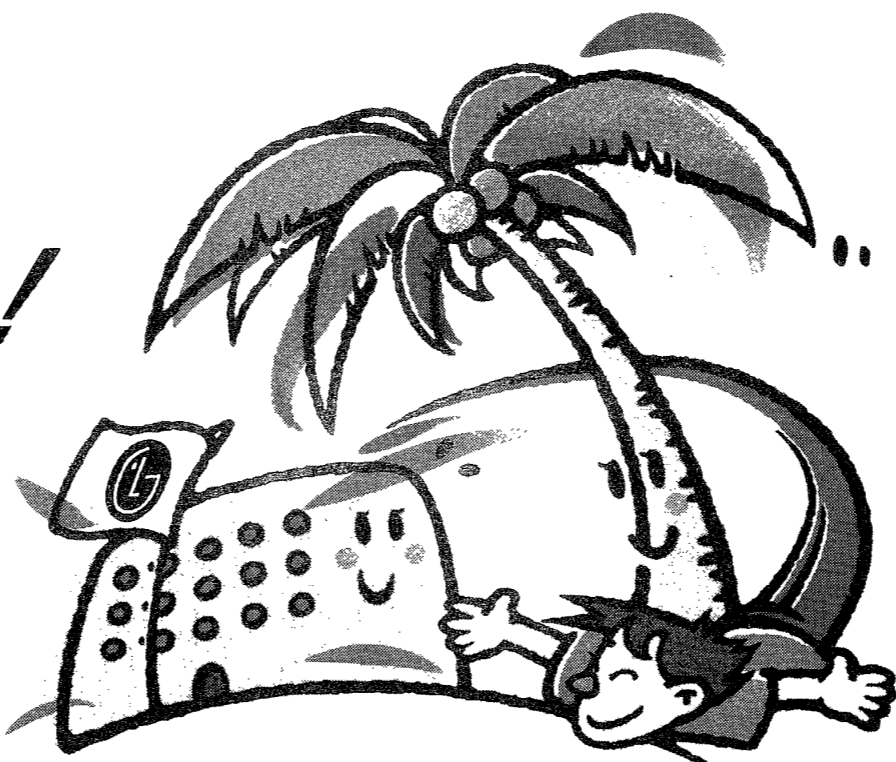
본사에서 동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제10회 동대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시 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평론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5년 11월1일~30일까지 시상 시 부문: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학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1996년 1월1일자 본지 지상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동대신문사

세계로 가는 엘리트, 함께 가는 LG

LG 산학지원 프로그램 해외연수편 - 말레이시아

셀라마 다땅, 코리아!



서울에서 6시간을 날아가 도착한 말레이반도-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시차에 반도라는 공통점과 1945년에 독립한 것까지 똑같은 말레이시아는 생각보다 너무나 가까운 나라였다. 거리에선 우리가 만든 자동차와 우리가 지은 빌딩을 쉽게 볼 수 있고, 상점에선 우리의 상품과 우리말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곳- 외국에 나가보면 예국자가 된다는 말을 끊임없이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한국인 11명이 2백여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플라스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LG 플라스타 케냐 공장에서 코끝 찡한 감격을 느꼈기 때문이다. 한국을 환영하는 말레이시아 전체의 분위기는 분명 우리 한국인이 일궈낸 땅의 결실, 그 자체였다.

송창우(영문대학교 전자재료공학과 4학년)

우리의 인재를 세계의 인재로 키우는 LG 산학지원 프로그램

매년 전국에서 1천여명의 우수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 각종 자격취득을 적극 지원하며, 여름방학 동안 그룹 해외연수 및 개인 배낭여행도 보내드립니다.



● 셀라마 다땅 (SELAMAT DATANG) 은 말레이어로 환영한다는 뜻

우리가 "현대 프랑스 사상"이라고 말할 때, 이는 보통 알튀세, 발리마, 푸코, 데리다, 모다르, 보드리야르, 카스토리아디스, 들리외, 가파라, 라캉, 부르디외 등을 포함한다. 이들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허버마스 등과 같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흐름 및 포퍼, 라카토스, 피어어벤트 등으로 대표되는 영미의 과학철학적 흐름과 함께 세계 철학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한 기둥이 되고 있다.

나체 및 하이데거의 철학과 더불어 20세기 인문학의 가장 혁명적인 두사건인 언어학적 전회와 구조주의 혁명을 자신들의 지적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프랑스 사상가들은, 그들 간의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철학적 경향과 구분될 수 있는 몇가지의 테마를 공통적으로 거론해왔다. 근대철학적 "주체" 범주의 해체와 이른바 "모더니티"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 그리고 역사를 연속적인 계열로 파악하는 역사주의적 접근과 진화론적인 역사관에 대항하는 계보론적인 방법론이 그것이다. 이들은 독일 근대철학의 자궁 안에 응크리고 있었던 그동안의 지배적 경향을 전복적으로 비판하면서 그것을 가혹한 투쟁의 대상으로 밀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프랑스철학자들은 동점적이고 일직선적인 사상적 진화의 길을 밟아 온 것이 결코 아니며, 그것이 정치철학적으로 함축하고

◇ 신간 '현대프랑스철학의 성격논쟁'과 '68사상과 현대프랑스철학'

‘...성격논쟁’ 영국사회주의 노동자당내의 논쟁 답아

‘68사상...’ 1968년 노·학봉기의 철학적 의미탐구

‘주체의 죽음’에 대한 좌·우익 입장 비교 텍스트 될것

있는 바들은 기존의 좌익과 우익의 구분을 무색케하리만치 충분히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것들이다. 현대 프랑스철학의, 철학사적 혁명성을 대표하는 미셀 푸코가 자신의 철학적 성과들을 저항적 권력투쟁을 위한 "도구상자"로 취급해주시기를 당부하였던 것에서 드러나듯이, 이들 프랑스인들이 글쓰기는 철학자들의 고매한 규범과 학제적인 분할의 선을 희롱하면서 분방한 상상력의 풍선에 수많은 짐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전유에 있어서도 특정한 사상과 특정한 정치적 입장 간의 직선적인 상응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영국사회주의 노동자당(SWP)내에서의 논쟁을 담은 '현대 프랑스철학의 성격논쟁'과 파리대학 정치철학자들에 의해 씌어진 '68사상과 현대 프랑스철학'은 열려진 "도구상자"를 뒤져 보물을 쥐고 달아난 철학자들이 상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제각각의 마을로 돌아가 어떤 영웅담들을 풀어놓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들이다. 유럽에서 가장 전부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자 정당 이론가들이 프랑스 사상이 제기한 의제들의 실천적 의미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 것이 앞의 책이라면, 68사상에 대한 페리와 르노의 저술은 자유민주주의적 입장에서 1968년에 있었던 학생·노동자 봉기의 철학적 의미와 현대 프랑스사상의 정치철학적 함의를 탐구하고 있다.

일체의 이론적 논의들을 사회주의 혁명을 향한 계급적 실천의 지평 한가운데 위치시키고자 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철학적 작업들이 "계급투쟁으로서의 철학하기"속으로 어떻게 접어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들 프랑스인들의 비판이 자본주의, 특히 소련의 국가본주의를 현실적으로 비판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과 비중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사항들 역시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구분의 정당성과

그 가능성, 혁명적 실천 속에서 "주체의 죽음"이 던져주는 의미와 효과, 집단적 주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형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이 되고 있다. 논자들의 철학적 소박함과 논의의 지평의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은 텍스트를 절대화하거나 고집시키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총체적 비판의 그들망 속에서 그것에 따뜻한 호흡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중요한 글들이다.

프랑스의 사상가들이 근대 주체 철학에 대하여 "주체의 죽음"으로 맞섰으며 독일의 허버마스과 그의 아우들이 "소통적 이성"으로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하였다면, 페리와 르노는 "개인성"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휴머니즘"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1968년 비판의 성격을 집단주의에 항거한 개인성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근대성"과 "주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일체의 철학적 주장들이 근대성의 양면적 경향 가운데 부정적 측면만을 일면

적으로 절대화하고 있으며 또한 근대정치체제의 두 전형인 자유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적 전체주의를 "근대성"의 범주 속에서 동일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결국 그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와 개인성의 옹호를 받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휴머니즘"은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화으로 옹호되어야 하는 이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SWP혁명가들과 같이 정치투쟁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아니지만, 근대 세계 비판과 개인성의 보존이 어떻게 철학적으로 통일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중요한 테마를 진지하게 다루어주고 있다.

따라서, '현대 프랑스철학'과 '68사상'은 사회주의자들과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주체의 죽음"이라는 현대 철학의 결정적 테마에 대하여 어떻게 서로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훌륭한 비교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또한 그와같은 지적 유용성과 더불어, 이들은 체제에 대한 논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담론들이 이 체제에 대한 비판과 옹호 사이의 전투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드러내 줄 것이다.

신진욱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달 하나 천 경 이

신토불이



불교는 본래 삼라만상을 하나의 진리라고 말한다. 하나의 진리가 모세의 세계를 나투기도 하고 모세가 없는 세계를 이루기도 한다. 그러므로 모세가 있는 물체와 모세가 없는 진리는 본래 동성(同性)이며 하나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 그 하나가 되는 바탕을 불성(佛性) 또는 진여성(眞如性)이라 하며 법성(法性)이라 하기도 한다. 삼라만상의 바탕은 법성(法性)이기 때문에 신라의 의상대사는 법성은 원융하며 둘이 아닌 모습이다(法性圓融無二相)라고 하였다.

중국의 승조대사는 만물은 나와 근원이 같은 것이며 만법은 나와 한 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말은 모두 진여성과 불성의 세계를 관찰하여 한 말이다. 기산론(起信論)에서는 정신과 물질은 하나라는 뜻에서 색심불이(色心不二)라고 하였다. 이는 정신과 물질은 불가분인 관계를 갖고 상부상조하면서 존재한다는 뜻이다. 몸과 물질계는 마음이 출생하여 활동케 한다는 뜻에서 처(處)라 하였고 마음과 물질은 한 가족이라는 뜻에서 계(界)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처(處)와 계(界)의 사상은 소승불교에서 이미 거론된 사상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진리에 의하여 존재하며 물질도 비록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리를 잘 관찰하면 결국 하나의 진리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대(四大)의 성(性)은 극미(極微) 또는 미진(微塵) 그리고 산화제(四)의 모습을 나타내며 본성과 모습은 둘이 아닌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불교는 이러한 진리를 설명할 때 불이(不二), 무이(無二), 불이(不二) 등으로 표현한다. 지금으로부터 1천3백50년전에 보도화상(普度和尚)은 진여(眞如)의 본질을 깨닫고 신토불이라는 제목을 정하여 몸과 토지는 본래 둘이 아니라는 계승을 지었다. 법신(法身)과 범성토(法性土)는 본래 둘이 아니라는 진리를 표현한 말이다.

필자는 보도화상의 신토불이 사상을 3년전에 연종보감(蓮宗寶鑑)이라는 책에서 발견하고 불성과 자연관정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할 때 인용한 바가 있다. 농민들의 시기를 복돋고 농산물을 애용하지는 취지로 신토불이라는 말을 홍보한 농협지도자들은 그동안 각 보도진과 시민들의 질문에 그 어원을 찾으려고 노력하여 온 것 같다. 필자가 신토불이라는 말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온 농협 간부는 일본회와 주역들 동양사상에서 그 어원을 찾으려고 노력하여 왔는데 매우 고맙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도화상이 신토불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느냐는 질문을 했다. 필자는 학문에는 예측불허의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9백5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므로 처음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는 신토불이 운동에 상응하여 농산물은 물론 국산품을 애용하고 국토를 내롭과 같이 아끼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오형근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히포크라테스와 허준 — 전립선염과 노림

오랫동안 앓아있는 자세 안좋아

수분섭취·좌욕도 치료에 도움돼

정치천

(한의학 한의학과 교수)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방알 같은 모양과 크기의 기관으로 전립선염을 분비하는데 방광 배새가 나며 정액에 포함되어 정자를 활발히 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남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정장년에서 염증이 잘 발생하는데 학생이나 회사원, 운전기사 등 오랫동안 앉아 지내서 이 부위에 압박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많다.

전립선염은 세균 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오래 차를 타고 다니거나 파를, 파로는 물론이고 자위 행위나 성교가 과도하거나 성교시간 성교를 하여 전립선이 오랫동안 출혈되는 것이 요인이 되며 비 오거나 흐린 날씨에 밖에 오래 있어도 잘 발생한다.

급성인 경우에는 소변을 볼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화끈거리며 소변을 자주 보고 싶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해진다. 소변이 뿌옇게 나오기

도 하고 싶으면 힘들게 나오거나 안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허리나 전립선 주변에 불쾌감, 종알감이나 통증이 생기기도 하며 열이 나고 으스스할 추워서 마치 감기 몸살에 근육통이 생긴 것 같기도 하다.

만성 염증은 아침에 첫 소변을 보기 전이나 소변을 오래 참은 뒤에 우유같은 묽은 분비물이 나오며 소변이 가늘어 나오거나 여러 갈래로 갈라지거나 똑똑 떨어지기도 하고 소변이 급해지고 보기 어려우며 불쾌감도 많다. 또한 전립선부와 허리, 사타구니, 성기 주위에 통증이 있고, 쉽게 피로해지며 권태감을 느끼고 성욕이 감소되거나 조루증, 사정을 할 때 통증이 있거나 피가 나오는 등의 성기능 장애가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심한 우울증과 성적 신경쇠약 상태에 빠진다.

특히 세균이 발견되지 않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오래도록 잘 낫지 않아 고민과 불안이 커져 생업이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절대 심각한 것은 아니므로 심리적인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한의학에서는 노림에 속하는 것으로 노력이 과다하여 소변이 순조롭게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무절제한 생생활(방로)과 노(노역) 등으로 신(腎)과 비(脾)가 쇠약해진 탓이며, 또한 생각이 근심, 걱정이 많아(심로) 심(心)이 허약해진 것도 원인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치료는 원인 제거에 힘쓰고 동시에 근본 원인 원기가 허약해진 것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파로와 전립선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운동(승마, 자전거 등), 술과 커피, 매운 음식 등을 피하는게 좋다. 또한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량을 늘리고,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며 급속(熱縮)하기 보다는 적당한 간격으로 성교를 하여 전립선염의 배설을 돕도록 하여야 한다.

짧은 날에 성적인 욕구는 많은데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도 요인이므로 성적인 충동을 다른 것으로 해소시켜야 할 것이며 불결한 성관계로 인해 요도염이 생기기도 그 치료를 잘 하지 못해 전립선염이 병발되어 심할 경우 불임증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경주국립박물관 개최 '경주남산 특별전'



경부고속전철 남산통과 저지 위해

"이상적인 불국토세계 한눈에 볼수 있어"

신라인의 이상적인 불국토 세계, 경주남산.

그곳 남산은 수많은 석불, 석탑들이 자연과 일체를 이룬 곳이자, 건국설화에 나타난 나경에서 신라의 종막 포석정까지 자리해 있는 신라 역사의 거처이다.

그런데, 지금 한창 논란중인 경부고속전철은 바로 그 남산을 지나치게 된다. 고속전철노선문제 논란 속

에서 경주국립박물관에서는 간접적 대안제시의 한 방편으로 '경주남산'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34일간 국립박물관 안압지에서 전시된다.

전시물은 1백22개소의 남산절터 가운데 잘 알려진 절의 불상, 석탑, 석등등 석조물, 사지출토 유물을 전시하고, 특히 5백91년 신라국왕의

중심지인 남산신성을 쌓을때의 내용-신라 중고기(中古期) 지방통치체제와 역역동원체제, 지방민 신분구상, 촌락민 생활상등-을 자세히 기록한 남산신성비가 볼 만한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 범종, 청자류, 명문기, 금속기등 처음 공개되는 유물로서 특별전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시된 유물은 2백50여점에 이르며, 시대별로는 신석기시대의 빛갈 무늬 토기에서 조선시대 유물까지 이른다.

한편, 출토유물 전시와 함께 영상 안내시스템을 갖춘 남산박물관(1/1천3백 축소)을 전시해 펼쳐가마 다 석불, 석탑등이 산재해 있음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전은 경부고속전철 노선의 논란 속에서 남산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체된 조화를 파괴하려는 것의 속성은 아마도 '이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던지며, 우리의 유물을 관심있게 보고서 판단해봄이 어떤지 제언해 본다.

(박효선 기자)

LG Chemical advertisement featuring a DNA helix and a person in a lab coat. Text includes: '화학강국이 세계강국', '모든 산업의 기초는 화학-화학산업이 발달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and 'LG화학' logo.

영화의 퍼러독스

— 유니버시식 영화와 근대성 자각

여러 에피소드 단절적 나열 일상성에 초점 맞춰 현실재구축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 평론가)

요즘 유행하는 영화양식중에는 소위 '유니버시식' 구성의 영화가 자주 눈에 띈다. 유니버시식이란 일명 '격자소설' 양식이라 하여 문학에서 이미 정착화된 용어인데 '악한소설(Picaresque)'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 온 것이다. 일출간의 이야기를 다룬 '데카메론'이 대표적이다. 이문구의 '우리 동네' 시리즈, 양귀지의 '원미동시인' 등의 연작소설도 넓은 의미로 그 범주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다.

최근 영화속에서 그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 영화는 '필립픽션' '비포 데 데이' '중경상림' '조이러블 톱' '스모크' '올란도' '아웃' '페션쇼' '세가지 색' '블루 화이트 레드' 키에 스톱스키 감독의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은 10부작 연작영화인 '10계명' 중 여섯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

라'를 영화화한 짧은 단편인데 독립된 장면영화로 분리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7명의 감독들이 일곱개의 에피소드를 각기 다르게 연출하는 영화 '백주'가 예전보다 좋은 일곱가지 이유라는 작품도 유니버시식 구성을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유니버시식 구성과 연작형식은 한편의 분량에 담는다. 아니면 여러 편으로 나뉘는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창작자의 발상과 구성법은 동일한 목적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유니버시식 구성은 구성방식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에피소드식 구성은 '모자이크식' 구성이라 하여 에피소드들이 서로 분리된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원칙에 입각한다. 대신 각각의 에피소드의 화자와 시점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화자와 시점의 분리는 현실을 파

악하는 인식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에피소드식이 지향하는 다양한 목소리의 영화는 권위적인 중심을 해체하는 탈중심적인 성격의 영화이며, 기존의 보수적이며 지배적인 힘에 대한 저항이거나 현실재구축에 관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근대성을 표명한 양식은 그에 걸맞은 내용과 주제를 갖게되는 데, 종래의 드라마가 갖는 고유한 영역인 극적 허구성을 철저히 파괴하고 대신 일상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서술해 나간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작품양식의 변화는 현실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기 성찰적 움직임이다. 우리나라는 현실 그대로를 믿을 수 없는 자기 주체성의 결여와 혼돈속에서 표류하는 자아찾기과정을 겪고 있다. 현실을 되돌고 검증해야만 하는 탈고정적 가치관을 지향한다. 이러한 자기 성찰적 움직임이 이들 작품양식을 변화시키며, 관객들은 지배적인 관념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는 의식을 이들 영화를 통해 더욱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 전통가족제도를 통해 본 '간 큰 남자' 시리즈

"젊어서 아내에게 큰소리 치다가 늙어서 안 통하면 느끼는 설움"

임돈희

(문과대 사학과 교수)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래없이 유행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증거이다. 남자가 다같이 즐기는 것을 보면 남자가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반응을 물어보면 영 딴판이다. 여자에게 물어보면 남자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반면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간 큰 남자에 등장하는 마누라보다 실제 마누라는 더 심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이다. 누가 옳은가? 나는 여기서 남녀의 싸움만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이한 의견을 갖게되는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가족은 부계제 가족으로서 모든 가족성원간의 권리와 의무가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승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산상 상속받는 남자들의 권리가 여자에 비해

강하며 여성에 대한 지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더군다나 부모의 입장에서 서는 시집가서 남의 집 사람이 되는 딸 보다는 늙어서 부모를 부양하는 아들이 스승하게 되고 따라서 여아보다는 남자아이를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초의 부부관계에 있어 남편은 아내에 비해 월등히 유력한 위치에 있게 된다. 남편은 부모형제에 둘러싸여 아내에게 큰소리치게 된다. 친정을 떠나 혼자 여자에게 둘러싸인 남자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반면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간 큰 남자에 등장하는 마누라보다 실제 마누라는 더 심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이다. 누가 옳은가? 나는 여기서 남녀의 싸움만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이한 의견을 갖게되는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전통가족을 여자에게 초점을 맞춘 자강가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결혼초에 열세에 있던 아내는 세월이 갈수록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게 된다. 자녀도 일하고 소용없는 아내를 바보같이 바보니 집안일과 자녀교육이 자연히 아내의 통제권에 있게 된다. 자녀도 일하고 소용없는 아내를 바보같이 바보니 집안일과 자녀교육이 자연히 아내의 통제권에 있게 된다. 자녀도 일하고 소용없는 아내를 바보같이 바보니 집안일과 자녀교육이 자연히 아내의 통제권에 있게 된다.

된다. 더군다나 세월이 가면서 남편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시)부모는 연로하거나 아니면 사망하고 형제자매는 따로 분가하게 되어 남편은 외롭기가 된다. 여기에 비해 아내는 장성한 자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집안의 통솔자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가족간의 관계에 있어 남자는 태어나면서 조상과 부모의 덕으로 얻은 획득신분인 반면 여자는 자기의 노력에 의해 얻은 성취신분인 셈이다. 초기에는 남자가 큰 소리를 지르는 우세한 위치에 있지만 세월이 가면서 여성이 큰 소리는 위치에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간 큰 남자 이야기가 여권신장으로 인하여 요즘 세로이 생긴 사회현상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남편의 말씀이다. 간 큰 남자의 원조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옛날에(요새가 아닌) 한 중국황제가 있었는데 그는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없었다. 황제니까! 그런데 그가 꼭 짚는 사람이 있다. 늙은 마누라(젊은 마누라가 아닌)다. 그 앞에만 가면 꼭 짚는 듯하니

화도 나고 답답하여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서 물어보았다. '경들중 마누라에게 꼭 짚는 사람은 흰 깃발 아래서도 마누라가 무섭지 않은 사람은 붉은 깃발아래 서라' 그랬더니 수백명의 늙은 신하들이 한결같이 흰 깃발아래 섰다. 그런데 한 신하만 붉은 깃발아래 섰다. 황제를 위시하여 모든 신하들이 이 위대한 신하에게 마누라가 무섭지 않은 비결을 물었다. 그랬더니 이 신하 왈 '오늘 아침에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데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해서라고 답하였나.

결론은 간 큰 남자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간 남자의 간은 젊었을때 큰 소리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젊어서 아내에게 큰소리(즉 억압)를 많이 친 남자의 수목(늙어서 간)이 커질 것(마누라로부터 꾸박)이라는 예측이다. 해결방법은? 젊어서 평등한 부부관계를 갖게되면 자연히 간 큰 남자는 멸종할 것이다.



◆ 김민기씨가 11년의 연기 끝에 선보인 '개똥이'는 국내최초 록오페라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그의 실험정신을 반영한 작품이다. 이 장면은 '개똥이' 연중 공연백에 열연하는 배우들의 모습.

◆ 김민기 록오페라 '개똥이'를 보고

오페라에 록 결합한 대중적 양식 선보여 "환경파피 알리는 개똥이의 노래"

인생살이를 재조명한 것이 연극이다. 연극을 통해 새로운 삶이 재조명되며 세계관에 대한 안목을 재정의할 수 있다. 연극은 항상 새로운 시도를 위해 노력하며 기존의 세계관과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음악이다. 형식과 기존의 틀에 얽매지 않아 신선하고 부담없는 문화의 한 장르이다.

영국과 음악의 총집합체 '개똥이'는 김민기씨가 11년 연기 끝에 선보인 작품이다. 록을 기본으로 오페라 형식을 취한 이 록오페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목을 끌고 있다. 뮤지컬은 영국과 음악의 혼합체여서 두 분야의 특성이 위축되고, 대사를 노래로 대체하는 오페라는 극적인 활동이 없어 생동감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상반된 두 양식을 섞어놓은 것이 '개똥이' 김민기씨의 실험정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김민기씨는 "오페라는 서양의 고전음악을 사용하는데 비해 록오페라 '개똥이'는 대중음악을 결합해 대중에게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을 줄 수 있다"며 록오페라에 대해 설명했다.

5년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곤충과 식물등, 생태계 파괴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후 탄생한 '개똥이'는 환경문제를 주제로 담고있다. 그런데 '개똥이'는 대사 대신 노래로 대화 형식을 취해 '환경'이라는 묵직한 소재를 간직하면서도 어린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다. 또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동화적인 형태로 환경문제에 대한 주입식 선전을 하기보다는 관객이 공감을 관여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정서적 감응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실천을 유도한다.

골까지 완벽한 라이브 공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녹음테이프를 들고 몸짓만 하는 기존의 뮤지컬이나 오페라와는 다르게 '개똥이' 출연 배우들은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배우들이 노래와 몸짓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어색한 것이 없었지만 생동감과 현장성을 느끼기엔 충분하다.

'개똥이'는 인간 중심으로서 생태계를 보는 것이 아닌 곤충과 식물, 즉 자연의 관점에서 생태계를 보는 것이 특징이다.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해석되어 온 환경문제를 자연의 관점으로 재조명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새로이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나오는 곤충사회는 마리의 우리사회가 될 지도 모른다. 환경오염으로 야기된 적자생존의 사회, 결국 곤충들에게만 타진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사회가 환경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강한자만이, 강한자만이 살아남는 법'이 되지만 개똥이의 노래 대사는 단순한 노랫말로 그치지 않는다. '개똥이'는 환경에 소홀히 하는 현대사회에 딱딱히 경고 하는 것이다. 11년간 고심 끝에 선보인 '개똥이'를 보고 "록은 속삭여 준 기본이다"란 김민기씨의 노래를 들으며 반듯이 되가까이 수많은 곤충을 담은 개똥이가 그 자신이 야기가 생각해 본다. (한상우 기자)

강성수의 이야기



메아리

알리바바의 꿈

문지름들을 메우고 있다. 돈을 어디다 썼을지는 하늘과 노 전대명령만 알것이라는 검찰총의 발언. '나부터 살고보자는' 시으로 일찍부터 탈당을 서두른 몇 의원들.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오히려 목소리 큰 민자당이 의결. 그런 '노세 죽이기'에 가담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5공시절 빛났다는 의원들. 비행기 타고 날아가

서 고민하는 YS. 그리고 "우리 남편 비상금은 4만원"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하는 어머니들 ▲물론 5천원이라는 돈이 관여된 일이지 쉽게 넘어갈수는 없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봐서, 쉬 웃었다가 쉬 식고하는 '남비여론'의 관행이 되풀이될까 걱정이다. 똑같은 사안이 신문·방송에 연일 보도되면 해결이 체되지않는 것이랄도 "이게 아직도 나오네, 뉴스거리가 없냐" 하는 식의 변명(?)같이다. 5.18과 관련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처벌, 예까지 여론의 화살이 쏠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일지 모르지만, 어쩌겠는 40인의 도둑을 차례로 죽이고 금은보화까지 손에 넣었던 알리바바가 돼보는 꿈을 꾸는 이가 많을듯 하다. (리)

교육개혁을 최초로 단행한 동국대학교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길러낼 훌륭한 스승을 모십니다

교수 초빙

1996학년도 제1학기 초빙분야

학부(과)	전공	초빙분야
법학부	인도철학	인도불교사상학과 담론리즘
인문학부	신학	종교사상학과 담론리즘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	국학사상학과 담론리즘
조선사학과	조선사	조선사상학과 담론리즘
인도사학과	인도사	인도사상학과 담론리즘
경제학부	경제학	경제학사상학과 담론리즘
경영학부	경영학	경영학사상학과 담론리즘
생물자원과학부	생물학	생물학사상학과 담론리즘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	전자공학사상학과 담론리즘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	토목공학사상학과 담론리즘
화학공학과	화학	화학공학사상학과 담론리즘
식품공학과	식품공학	식품공학사상학과 담론리즘
신약공학과	신약학	신약공학사상학과 담론리즘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기계공학사상학과 담론리즘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사상학과 담론리즘
유체공학과	유체공학	유체공학사상학과 담론리즘
연극·영상학부	연극	연극사상학과 담론리즘
	영화·TV	영화사상학과 담론리즘

학부(과)	전공	초빙분야
법학부	법학	법학사상학과 담론리즘
인문과학부	인문학	인문학사상학과 담론리즘
진장정보학부	정보학	정보학사상학과 담론리즘
경영학부	경영학	경영학사상학과 담론리즘
공공정책학부	공공정책학	공공정책학사상학과 담론리즘
의학과	의학	의학사상학과 담론리즘

1. 초빙인원: 각 전공별 약간명
2. 자격

가. 교육공무원 인용으로 경력사유가 없으며, 병역을 완수하거나 면제된 자.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의학, 예능계열은 예외). 인문, 예능계열은 1951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사회, 자연계열은 1956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경찰행정학과, 의학계열은 예외)
다. 경찰행정학과는 탁월한 연구경력(국책연구기관이상) 또는 대학의 전임교원, 총경이상 실무경력자로서 박사학위소지자.
라.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원칙으로 함.

3. 제출서류
가. 이력서(전공분야 및 진화번호를 우측상단에 명기, 명함사진 부착).....2부
나. 학위 및 성적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각 1부
다. 경력 및 제직증명서 (이력서상의 경력증명서).....각 1부
라. 연구실적 목록 (제목, 연구자, 발표지, 발표일자 명기).....2부
마. 연구실적물 (학위논문과 92.31이후 발표된 논문 및 저서).....각 1편
바. 임용후 수행한 연구계획서 (4000자 내외의 분량).....1부

사. 전문자격증사본 (의학계열 임상분야 지원자에 한함).....1부
아. 의사면허증사본 (의학계열 기초분야 지원자에 한함).....1부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1995년 11월 16일(목)~11월 20일(월) 17:00까지
나. 서울 및 경주캠퍼스 교무과 (지원하는 캠퍼스별로 접수)

5. 기 타
가. 외국어로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
나. 서류심사후 초빙예정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신입교원의 임용은 전임강사 2명, 조교수 4년의 계약제임

서울캠퍼스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60-3031~3034]
경주캠퍼스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51)770-2031~2034]

동국대학교